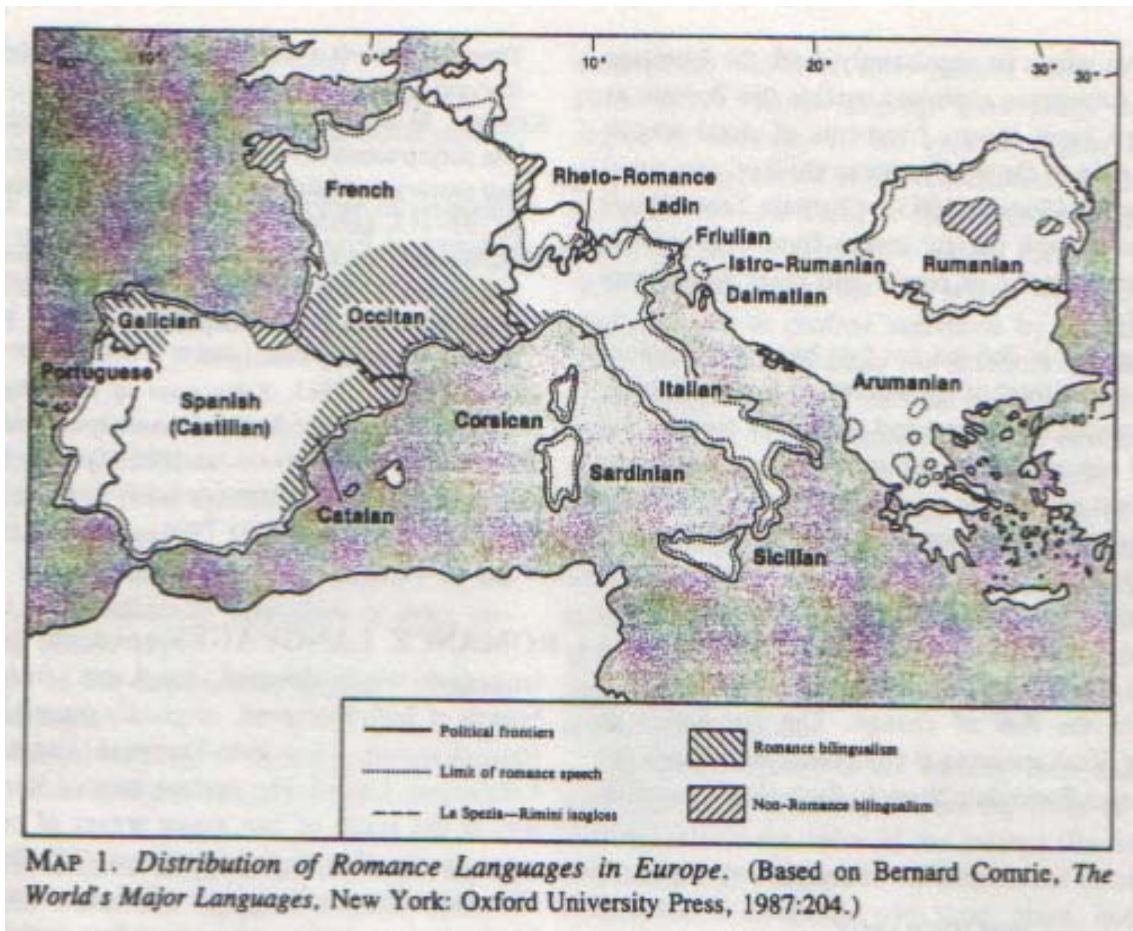


ROMANCE LANGUAGES MA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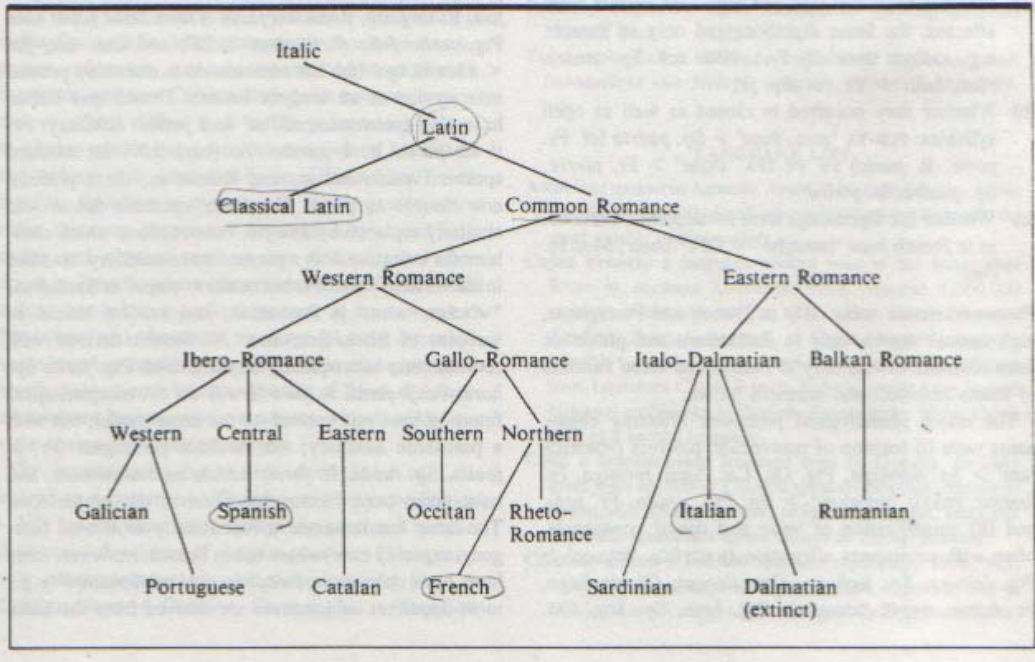


ROMANCE LANGUAGES MAP



MAP 1. *Distribution of Romance Languages in Europe.* (Based on Bernard Comrie, *The World's Major Languag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7:204.)

FIGURE 1. Genetic Classification of Romance Languages



2)이탈리아어(Italian Language)



<현대 행정 지도>



<현대 이탈리아어 지도>

이탈리아어(Italian language)는 학교에서 자국민들과 외국인들에게 가르쳐지는, 이탈리아를 두루 통해 공식적인, 형식적인, 그리고 문어적인 의도에서 사용되는 **표준어**(Standard language)이다. 공통의 일상어(everyday speech)는 표준어와는 다른 *지역 이탈리아 방언*이거나 지역어법에 의해 영향을 받은 표준어이다. 형식적일 기회가 더 적을수록 그리고 화자가 교육을 덜 받았을수록, 표준 이탈리아어로부터의 이탈이 더 크다. 많은 사람들이 표준 이탈리아어를 전혀 말할 수 없다. **이탈리아어**(Italian)라고 불리워지는 모든 형식의 말들은 **로만스어**(Romance Language)에 속한다.

//로만스어들 중의 하나인 이탈리아어(Italian)은 대략 육 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의해 말해지는 이탈리아의 주요한 국가언어이다. 그것은 마찬가지로 Ticino의 canton에 사는 약 이십 오만 명의 화자들을 지닌, Switzerland의 공식언어이다. 이탈리아어의 작은집단(pockets)들은 북 Yugoslavia에서 생존하며 그리고 그것은 Malta와 Somalia에서의 교육 그리고/또는 문화어의 지위를 보유했다. Corsica의 언어는 비록 그 섬이 공식적으로 1769 년 이후로 공식적으로 [2개 국어의 공용어가 있는 나라에서] 프랑스어로 말하는 주민(Francophone)이었지만 밀접하게 Tuscan 방언들과 관련된다. 거꾸로 Sardinia는 비록 이탈리아인이 정치적 그리고 사회-경제적 이유들에서 그 곳 선조들인 이탈리아(Italy)의 자유히 지역이었기는 해도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그리고 주목할만한 시원적인 로만스어로 간주되는 Sardinian 화자들을 약 백만 명 정도 포함한다. 여태까지 이탈리아 외부의 가장 큰 이탈리아어로 말하는 주민들의(Italophone)공동체들은 19세기와 20세기 연이 어지는 이민의 물결들에 자신들의 기원을 두고 있다. 미국에는 사 백만 명의, Argentina에는 백 오십 만 명의, 그리고 Australia와 Canada와 Brazil에는 각 각 백 만 명의 이탈리아어 화자들이 있다. 여러 해 동안 무시된 후에, 지난 이십세기의 마지막 사 사(4/4) 분기는 이러한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에 의한 언어의식의 두드러진 증가와 조장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어(Italian)은 무엇인가? 라는 핵심 물음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 반도는 극단적인 언어적 이질성에 의해 특징지어지며, 지역방언들은 두드러진 구조적 차이들을 드러내고, 자주 상호간에 비지성적이다. 이런 상황은 로마제국 몰락 이후, 일련의 작은 도시-국가들의 돌출에 잇따른 언어적 분열 결과이다. 언론매체와 공적인 삶에서 사용되며 그리고 마찬가지로 학교들에서 가르쳐지는 **현대표준어**는 소위 tre corone ‘three crowns’, Dante(1265-1321),

Boccaccio(1313-75), 그리고 Petrarch (1304-74)의 손들에서 획득된 문학적인 우선권의 결과를 지닌 *Florence* 방언으로부터 크게는 궁극적으로 파생됐다. 이러한 영향은 16 세기에 굳어져서, 그것들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것이 베네치아 사람 Pietro Bembo(1407-1547)이 지은 Prose della volgar인 일련의 문법들과 논문들이 편찬됐다. **문어로부터의 일상어로의 도약은 단지 실제로 1861년의 정치적인 통합 이후에야 달성됐다.**

‘방언’(dialect) 이라는 용어는 상황의 다양함을 덮을 수 있다. 결코 글로 쓰인 적이 없거나 환원된 적이 없었던 격리된, 시골 말 다양함이라는 감각에서의 방언은 그 이외의 유럽 어느 지역에서 보다 이탈리아에서 더 오래 보유됐으며, 그리고 많은 화자들은 자유롭게 방언에서 표준어 바꿀 수 있다. 이러한 감각에서 이탈리아 방언들은 (La Spezia/Rimini 선(line, 線) 위쪽) 북부와 Tuscan과 중앙/남부로 분류될 수 있으리라. 어쩔수없이, 현대사회이 압력과 증가하는 교육 량은 이러한 상황을 뒤 바꾸고 있다. 다른 감각에서 방언은 Milan 또는 Venice 또는 Naples와 같은 문화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중심지의 언어를 가리킬 수 있을 것이다. 행정적이고 문학적인 의도에서 다른 기간 동안 사용된 이러한 다양함들은 내적 계층의 정도를 드러내며 그리고 그러한 다양함들을 위해 문법저술과 사전편찬의 다소 긴 전통들이 존재했다. 이것들(또는 다른 것들) 중 어느 것이 아마 틀림없이 이탈리아의 그 ‘언어’로 됐을 것이고, 따라서 만약 역사가 달라졌다면 ‘Italian’이라는 명칭을 누렸을 것이다. (참고문헌을 위해서는, Migliorini 1960, Rohlfs 1966-69, Cortelazzo&Zolli 1979-88, Tekavčić 1980, Zingarelli 1983, Burzio 1986, Berruto 1987, De mauro 1983, Holtus et al. 1988, Lepschy & Lepschy 1988, Renzi 1988을 보라).//

2-1)방언(Dialects).

방언들의 수가 아주 많다. 그리고 차이들도 심해서 많은 것들이 상호 비지성적이다. 그래서 “방언”이라는 낱말들은 여기에서 영어가 보통 내포하는 것 보다 더 훨씬 더 많은 근본적인 다양함들을 내포한다. 방언들은 주요 여섯 부류들로 다음처럼 나뉠 수 있으리라:

- ㄱ)Gallo-Italian: a)Piedmontese; b)Ligurian; c)Lombard; d)Emilian.
- ㄴ)Venetian: a)Veneziano; b)Trentine; c)Istrian.
- ㄷ)Tuscan: a)**Florentine**; b)Western Tuscan; c)Southern Tuscan.
- ㄹ)Corsican.
- ㅁ)Central Italian: a)Northern Latian; b)**Umbrian**; c)Marchigiano;

- d)(Modern) Roman.
 ㄷ)Southern Italian: a)Southern Latian; b)Abruzzese; c)Campanian;
 d)Calabrian; f)Sicilian.

더 나아간 하위 분류들이 가능한 것처럼, 다른 분류들도 가능하다.

이탈리아 방언들은 마찬가지로 스위스 canto Ticino에서와 그리고 Corcia에서도 말해지며, 그리고 Veglia(Krk)의 Adriatic 섬과 Dalmatia에서 각 각 19세기와 15세기에 말해졌다.

이탈리아어는 그 다양한 형식으로 약 오천만 명의 자국민들에 의해 말해진다. 미국과 아르헨티나에로의 두드러지게 많은 수의 이탈리아 사람들의 이주자들은 이탈리아어로 계속 말했으며 그리고 자신들의 새로운 땅의 언어를 두 번째 언어로 사용했지만, 후세들은 점진적으로 영어 또는 스페인어 하나 만을 말하는 자들로 되고 있다. 이차세계대전 끝날 즈음 이탈리아의 아프리카 식민지들의 손실 이후, 한 때 비록 모국어로는 아니었지만 거기 공식언어였던 이탈리아어는 약해졌다.

이탈리아의 언어적인 분열과 방언들의 완고함은 역사적인 원인들을 지니고 있다. 비록 이탈리아는 정복중인 로마인들에 의해 라틴화됐다고 하더라도, 이탈리아의 수 많은 라틴어 이전의 언어들이 로마 정복 후 얼마 동안 존속했으며 그리고 계속 라틴어의 지역적인 어떤 발음들 속에서 계속됐기 때문이다 비록 그 증거가 빈약하더라도 말이다. 더 나아가서 모든 이탈리아가 동시에 로마인들에 의해 정확화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두가 동일한 종류의 라틴어에 노출된 것도 아니며 똑같은 철저함으로 라틴화된 것도 아니다. 병탄(annexed, 併呑)된 지역들에서의 어떤 언어 변용 정책도 있지 않았다. 언어적인 탈 중심화는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그 반도의 극단적이고 지속적인 정치적 이탈에 의해서 그 강도가 심해졌으며, 그리고 그 나라의 험악한 지형과 의사소통의 물리적 어려움들에 의해 가속화됐다.

2-2)표준어.

로마 국가의 해체와 세속교육의 붕괴 이후에, *고전라틴어*는 줄어드는 학식있는 자들의, 대부분 성직자들의 소유가 됐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 자신들의 토속어가 계속 변하고 있는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고전라틴어는 비지성적으로 되어갔다. 국가와 사적인 일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 이외의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할 다급함에 처했을 때, 그리고 설령 읽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들을 수는 있는 더 많은 대중에게 문학인들이 자신들의 작품들로 호소하라고 했

을 때,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동시대의 방언들을 글로 써서 줄이는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이것은, 심지어 현대언어학적 방법을 가지고서도, 고상한 언어(tongue)을 막무가내의 세속 말투(patois)로 바꾸려는 시도 라고 그 노력이 비난 받을 때 악화되는 힘든 작업이다.

14세기 초기에 라틴어로 쓰여진 De vulgari eloquentia “세속 언어에 관해”에서 Dante는 유럽과 이탈리아의 언어들을 능숙하게 개관하면서 공통의 특색들의 핵심을 유지하면서 극단적인 지역 특성들을 버리는 과정에서, 모든 방언들로부터 구성될 하나의 문어(literary language, 文語)를 모든 이탈리아인들을 위해 확립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신의 이론과는 반대로 단테 자신의 자신의 토속 방언, **Florentine**로 글을 썼다. 그래서 거의 혼자만의 손으로 그는 플로랑스어를 비롯 그것에 관한 충분한 의식이 없었기는 해도 이탈리아의 표준 문어로 만들었다. 그로부터 생기는 어떤 명성때문에 어떤 방언이 문어로 격상되는 것은 단테가 제안했던 과정보다는 오히려 일반적인 현상들이다. 플로랑스어는 주로 단테 자신의 신곡(Divina Commedia, 神曲)과 보다 후의 *Boccaccio*의 데카메론(Decamerone)과 *Petrarch*의 Canzoniere를 통해서 그 필연적인 명성을 획득했다. 그러나 플로랑스어는 독일 황제 Frederick II(1194-1250) 궁전의 Palermo에서 융성했다가 Honenstaufen 왕조와 더불어 끝난 Sicilian 학파의 시들과 같은 그런 잘된 작품들로 구성된 다른 방언들과 경쟁해야 했다. 대부분 Tuscany로부터의 현존 수고들이며 그리고 자유롭게 튀스카니아화된 본디 시들의 그 방언은 불확실했다. 그러나 플로랑스어는 Tuscan 학파에 의해 생산된 dolce stilnuovo “sweet new style”에 수록된 시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 지도자들 중의 하나인 볼로냐 사람(Bolognese), *Guido Guinizelli*가 플로랑스어로 글을 썼기 때문이다.

보다 암울한 장애가 있었다: 라틴어의 근본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학식있는 자들의 반대; 인쇄술 발명이전이라서 책 값이 비싼데다 광범위한 문맹율에 기인한 단테 작품들의 상대적으로 더딘 확산; 국가가 없음으로 인한 국가어의 그럴듯한 필요없음; 플로랑스의 어떤 인문주의자로하여금 신곡을 세속어로 쓰여진 세속적인 파편(piece, 破片)으로 비하하게끔 하는 그리고 이탈리아어가 시에는 부적당한 것으로 [인식하게 끄하는] 고대의 르네상스를 애호하는 문화적 풍토. (*Petrarch* 자신은 자신의 이탈리아어 작품들보다는 자신의 라틴어작품에 더 자긍심을 느꼈다).

그래서 라틴어 또는 이탈리아어 중 어느 것이 국가적 관용어(idiom, 慣用語)로 돼야하는가를 그리고 만약 이탈리아어라면 어느 방언이며 어떻게 “순수”해져야 하는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Questione della lingua* “언어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됐다. 여기에서 “순수”라는 것은 고풍주의로부터의, 특히 이슈가되고 있는 르네상스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18세기 이탈리아어와 다른 유럽어들에게 닥아오기 시작했던 켈리시즘(Galiicism, 프랑스 특유의 어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단테는 이미 플로랑스 편에 서서 논쟁에 참여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1525년 베네치아 사람(Venetian) Pietro Bembo는 자신의 *Prose della volgar lingua*를 발간함에 의해서 정서법과 문법적인 성문화(codification, 成文化)라는 (상대적으로 싼 책들에서 인쇄되어야 할 새로운 것인) 표준어를 위한 두 개의 긴급한 요구들을 완수했다.

의도적으로 보수적인 표준어 조차 심지어 만약 그것이 계속 사용되어야 한다면 반드시 개정에 호의적이지 않아서는 안 되었다. 일단 채용되자, 표준이탈리아어는 진화(evolution)가 금해졌으며 그리고 그것의 문법가들에 의해서 거의 질식사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아름답거나 고상하다고 생각됐던 형식들과 구들로 짜 맞추어져서 거추장스럽게 되 버렸으며(심지어 편지들과 공식문에서의 현대형식의 스타일들과 비교해보라) 현실(reality)로부터 소외 되 버렸다. 그것은 변하고 있는 세계들과 새로운 문학적 경향들의 요구들에 수 세기 동안 불충분해졌다. 몇몇 저술가들은 한 때 금해지지 않은 생생한 방언들에 보다 더 의지했으며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의 성장하는 방언 문학은 이탈리아어를 고전라틴어와 같은 죽은 언어로 환원시키려 위협했다. 그것은 표준 이탈리아어로 자신의 소설 *I promessi sposi* “the betrothed” 두번째 판을 썼던 밀라노 사람 *Alessandro Manzoni*에 의해서 구출됐다. 그러나 알레산드로 마쭌니는 실천적으로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많은 이론적인 수필들에서 그 언어가 개혁됐고 되살아났다는 것을, 그 간격을 채울 것이 허용됐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것에 봉사해야 할 삶의 흐름에 의해 그 언어가 영양을 섭취했다는 것을 봤다. 마쭌니의 노력들은 일깨워지는 국가주의에 의해 구조됐다.

현대표준이탈리아어는 여전히 근본적으로 플로랑스의 방언(*la casa* 대신에 *la hasa*, *amato* 대신에 *amaθo*에서처럼 독특한 지역성은 제거됐다)이긴 하나, 꾸준히 다른 방언들로부터의 차용어들에 의해서 풍부해지고 있다. 1870년 이후 국가의 수도인 로마의 방언은 자연스레 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현행의 표준 이탈리아어를 *lingua toscana in bocca romana* “로마 입 안의 Tuscan 혀(tongue)”라고 특징지운다. 발음은 이탈리아 내에서 일정치 않다. 그러나 모든 이탈리아사람들은 형태론과 구문론에 있어서 동일한 언어를 말하거나 또는 배운다. 소수의 사람들은 비록 *Tuscans*이기는 해도 문어적인 이탈리아어를 자국어적으로

말한다 표준에 더 근접하기 위한 명백한 이유에서 이다. 교육과 의사소통의 급격한 증진 그리고 먼 지역으로의 신문들과 라디오와 티브이의 확산과 더불어, 이탈리아어의 언어적인 표준화는 더 낮게 또는 더 나쁘게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것이다.

2-3)언어학의 역사.

라틴어의 끝과 이탈리아어의 시작 날짜를 매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발전은 끈기지 않았으며 그리고 **말해진** 언어에 있어서의 경계들은 임의적이다. 그러나 **글로 쓰여진** 텍스트들에 있어서의 이탈리아어의 시작은 라틴어의 중간기 쓰임에서 발견될 것이다. 말해진 어법과 글로쓰여진 어법은 두 종류의 라틴어가 아니며 그리고 “좋은” 쓰여진 형식(거의 고전적인 저자들인 그것을 만들수 있으리라)과 “나쁜” 말해진 형식은 단지 실제로 다른 언어들이라는 것을 몇몇 저술가들은 알아차렸다. 그런다음 말해진 토속어들로 마찬가지로 글을 쓰려는 시도들이 만들어졌다. 점원이 관습적인 하위부류적인 라틴어로 그 과정을 글로 써 내려가고 있는, 그러나 라틴어 보다는 오히려 (남부 방언) 이탈리아어였던 화자의 언어로 목격자의 결정적인 증언이 축적적으로 끼어들어와 있는 10세기 때의 일련의 법정 진술이 가장 이른 증거이다. 이후로 문서들과 유물들이 lingua volgare 또는 rustica(“세속적이거나 시골적인 언어”)로 보다 자주, 그러나 수 세기동안 특히 학술저서들에서 라틴어를 완전히 교체함이 없이, 있었다. Galileo(1564-1462)는 *학술적인 저서들에 이탈리아어를 사용한 첫 번째 사람이다.*

로마제국 말경과 함락 이후 외국 방언들을 말하는 자들에 의한 침략들과 점령들 그리고 문명인과 군대 안에서 늘어나는 숫자의 외국인들은 비록 언어학적인 변화들의 범위가 적었기는 해도(Norman 정복 이후의 영어의 변형들 보다는 훨씬 적었다), 자국어적인 관용어들을 수정시켰다.

중세 기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이탈리아의 침략들은 (5세기 북쪽으로부터 Calabria로 이동하면서 자신들의 왕 Alaric이 죽자 이탈리아를 포기한) 서고트족들과 그리고 (5세기 말과 6세기 초 Ranenna에 수도를 지닌 왕국을 건설하면서, 그러나 526년 Theodoric의 죽음 후에 Justinian에 의해 재흥된 로마권력에 의해 제압된) 동고트족들과 그리고 (교황청과 결속한 프랑크인들에 의해 끝장 난, Pavia에 수도를 지닌 느슨하게 연합된 왕국을 건설하면서 568~774년까지 가장 오래 머물렀던) Lombards(롬바르족들)이다. 그리고 이런 게르만의 침입에 이어 남부와 중앙 이탈리아는 아랍어로 말하는 무슬림들에 의해 그리고 그것의 주권이

12세기까지 지속된 Norman condottieri에 의해 침탈됐다. 그러나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그 이탈리아 언어를 의의있게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들의 유일한 중요한 흔적은 게르만인들과의 접촉에서 온 약 천 여 개의 사전적인 차용어들이다. 그러한 효과없었음은 부분적으로 침입자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것에 기인하기는 하나, 주로 자국인들과 침입자들 사이의 문화적인 이질성(incompatibility)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게르만인들은 뛰어난 로마 문명에 의해 경외심을 느꼈으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길들을 강요할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단테의 관용어를 포함하여, 이탈리아의 방언들은 외래인의 영향에 거의 변화를 겪지 않았다. 그리고 이탈리아어는 13 세기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으므로, 현대의 이탈리아어는 모든 로만스어들 중 가장 적게 라틴어로부터 벗어나고 있다.

비록 모두 로만스 방언들, 특히 이탈리아 방언들이기는 해도, 각기 방언은 자신의 언어학적인 역사들 지닌다. 모든 이탈리아 방언들은, 다른 로만스 관용어들과 함께, 공통의 로만스 변화들 취한다(로만스어 항목을 참조할 것). 이것들을 넘어서서, 표준이탈리아어의 역사는 공정하게 단순하다—주로 방언의 뒤섞임으로부터 복잡함들이 솟아오른다. 보다 세부적인 역사적인 기술을 위해서는 Florentine가 명백한 선택이다.

2-4)음성학.

만약 열렸다면 그리고 자유로운 위치라면(즉 음절의 끝이라면) 후기 말해진 라틴어의 엑센트지닌 e와 o 모음들은 이중모음화한다: *pēdem* > *piede*, *bōnom* > *buono*; 만약 닫힌(*checked*) 위치라면 그것들은 유지된다: *cētum* > *certo*, *mōrtem* > *morte*; 만약 닫혔다면(*closed*) 위치에 상관없이 그것들은 유지된다. *pēsum* > *peso*, *vōcem* > *voce*, *fīrumu* > *fermo*, *mūltum* > *molto*. 북 불어에서처럼 e가 그 자리에 나타나는 곳에서의 몇몇 북서 방언들을 제외하면 a는 유지된다: 부정형 *-are* > *are*, 또는 *-e(re)*. (보다 이른 긴 *i*와 *ū*로부터 결과하는 짧은 *i*와 *ü*는 몇몇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제외하면 *e*와 *o*로서 나타나는) **i**와 **u**는 항상 유지된다: *filum* > *filo*, *murum* > *muro*. 잇따르는 경구개음과 비음이 기대되는 e와 o 대신에 각각 *i*와 *u*를 생산하는 것은 비록 다른 Tuscan 방언들에서는 아니지만 Florentine에서는 전형적이다: *lingua* > *lingua*,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lengua*; *ungula* > *unghia*, 그 이외의 곳에서는 *onghia*. 남부 방언들은 메타포니(*metaphony*)적이다. 즉 선행하는 엑센트지닌 모음에 엑센트 없는 것이 영향을 미친다: *bonum* > *buono*, 그러나 *bonam* > *bona*. 불어와 마찬가지로

지로 Piedmont와 Lombardy는 소위 움라우트(**umlaut**, 변모음) ü와 ö를 지닌다(그래서 후에 독일어 정서법으로 옮겨써진다).

a를 제외하면 (강세 없는) 모음들은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e와 i, o와 u는 자주 합쳐진다. 그것들의 발전은 크게 낱말 안에서의 그것들의 위치에 의존한다: pretonic(엑센트앞음절), posttonic(엑센트뒷음절), 처음, 마지막, 엑센트음절 사이(intertonic). 남부 방언들의 경우 모든 마지막 강세없는 모음들은 쉼와(schwa)-소리 ə로 녹아진다(마치 영어 “father”의 두 번째 모음처럼 발음된다).

자음변화들 중에 가장 놀라운 현상들은 이것들이다: yod 그 자체의 그리고 e, i, 또는 yod 앞 폐쇄음의 경구개음화와 마찰과열음화: certum [kertum] > certo [tʃerto](대괄호는 음성학적인 필사를 단는다), cibum [kibum] > cibo [tʃbo], nationem [natyonem] > nazione [natsione], gentem > gente [dʒente], gyrum > giro [dʒiro], iurare > giurare [dʒurare], -arium > -aio, vinea > vigna [vinya]; 자음 더하기 l의 경구개음화: plus > più, florem > fiore, clarum > chiaro[kyaro]; 그리고 대부분의 마지막 자음들의 손실. 남부 방언들의 경우 -nd-와 -mb-는 -nn-과 -nm-으로 나타난다: quando—quanno, gamba—gamma, Oscan 기층을 포착하는 것으로서 자주 인용되는 특유함들이다. 북쪽에서는 모음사이의 단일한 무성자음들이 유성음화되며 그리고 긴 것들(겹친 철자들; 용어상의 모순인 “긴 폐쇄음들”은 실제로 더딘 과열과 더불어 분절되는 실제 폐쇄음들이다 예를들어 영어 “putting”에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put to”에서의 두 개의 t들)은 짧아진다. 북동쪽에서의 tʃ와 dʒ는 ts와 dz로 나타난다. 남쪽 -ll-은 Torello 대신에 Turiddu에서처럼 일반적으로 (-dd-로 필사되는)-dd-로 철자화되는 긴 반전 폐쇄음으로 나타난다.

표준 이탈리아어가 기대되는 것들과 다른 형들을 지니는 곳에서는 방언 차용어들이 자주 그 원인이다. 양자 모두 stationem으로부터 온 stazione “station”과 stzgione “season”처럼, 때때로 다른 의미들을 지닌 그와 같은 이중어들이 유지된다.

//표준 이탈리아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모음소들은 /i e ε a o u/이다. 자음들은 아래 도표 1에서 펼쳐진다.

이 체계는 교양 플로랑스어 탓으로 자주 돌려진다 그러나 많은 그러한 화자들은 Tuscany 외부의 표준어 사용자들에 의해 공유되지 않는 특질(traits, 特質)을 드러낸다. 그래서 모음사이에 긴 [s]와 [z]의 대조가 대부분의 이탈리아에서는 있지 않다: Tuscan chie[s]e ‘he asked’와 chie[z]e ‘churches’ 양자 모두는 북부에서 [z]로 발

이탈리아어 자음소들: 등가 정서법은 꺾음쇠 안에 주어진다					
		양순음	설단음Apical	경구개음	연구개음
폐쇄	무성	p	t		k<c, ch>
	유성	b	d		g<g, gh>
파찰	무성		ts<z>	tʃ<c, ci>	
	유성		dz<z>	dʒ<g, gi>	
마찰	무성	f	s	ʃ<sc, sci>	
	유성	v	(z)<s>		
비음		m	n	ɲ<gn>	
측음			l	ʎ<gl>	
진동음			r		

음되는 반면 남부에서는 [s]로 발음된다. 비슷한 지역적인 현상이 그것에 의해서 모음사이의 /p t k/가 무성 마찰음 또는 기식 폐쇄음들로서 실현되는 ‘Tuscan throat’ gorgia toscana(토스카나 인후음)이다. //

/2-4-1)알파벳.

이탈리아어는 21 개 문자의 알파벳을 사용한다. 영어권에 친근한 26 개 문자 알파벳의 다른 문자들은 외래어를 쓰는 데에 사용된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철자를 상세하게, 특히 전화에 관하여, 설명할 때, 그 문자를 선명하게 하기 위해 상응하는 도시의 이름들을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아래 도표를 보라). 아래는 그것들의 발음과 보통 사용되는 도시 이름을 지닌 문자들의 목록이다.

알파벳의 어떤 이름이 어떻게 특별히 전화의 경우 상세하게 설명 될 수 있는 있는 예들:

Roma, Qtranto, Savona, Savona, Imola = Rossi
 Savona, Milano, Imola, Torino, hotel = Smith
 Livorno, i greco, Milano, Bologna, Empoli, Roma, i greco = Lymbery

문자들은 남성 또는 여성으로 숙고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i greco보다는 i greca 라고 말 할 수 있으리라. 그것들은 보통 복수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ss이다: due esse; 마찬가지로: doppio esse 또는 doppia esse.

알파벳	이름	관련도시이름	알파벳	이름	관련도시이름
a	a	Ancona	m	emme	Milano
b	bi	Bologna/Bari	n	enne	Napoli
c	ci	Como	o	o	Otranto
d	di	Domodossola	p	pi	Pisa
e	e	Empoli	q	cu	cu
f	effe	Firenze	r	erre	Roma
g	gi	Genova	s	esse	Savona
h	acca	hotel	t	ti	Torino
i	i	Imola	u	u	Udine
l	elle	Livorno	v	vi/vu	Venezia
			z	zeta	Zara
아래 것들은 이탈리아어 문자들은 아니지만, 주로 외래어들에서 사용된다.					
j	i lungo/a		x	ics	
k	cappa		y	i greco/a, ippsilon	
w	vi/vu doppio				

Vowels & diphthongs

a	ai	au	e	è	é	ei	eu
[a]	[ai]	[au]	[e, ε]	[ε]	[e]	[ei]	[eu]
i	ie	o	ò	ó	oi	u	uo
[i, j]	[jε]	[o, ɔ]	[ɔ]	[o]	[oi]	[u, w]	[wɔ]

Consonants

b	c	cc	ch	d	f	g	gg	gh	gli
[b]	[tʃ, k]	[tʃ, k:]	[k]	[d]	[f]	[dʒ, g]	[dʒ:, g:]	[g]	[ʎ(:), gli]
gn	h	j	k	l	m	n	p	q	qu
[n(:)]	∅	[j, dʒ, ʒ]	[k]	[l]	[m]	[n]	[p]	[k]	[kw]
r	s	sc	t	v	w	x	y	z	
[r]	[s, z]	[ʃ, sk]	[t]	[v]	[w, v]	[ks]	[i, j]	[ts(:), dz(:)]	

Notes

c = [tʃ] before i or e, but [k] elsewhere

g = [dʒ] before i or e, but [g] elsewhere

s = [z] between vowels, but [s] elsewhere

sc = [ʃ] before i or e but [sk] before a, o or u

A double consonant is longer version of a single consonant and shortens the preceding vowel

//표준 화자들 중에는 시작 위치에서의 /dz/ 편을 들어서 /ts/와 /dz/ 사이의 음소적인 대립을 중성화시키려는 (복부 기원의)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ʃ ɲ ʎ /처럼, 모음 사이에 낀 /tz dz/는 긴 반면 다른 모든 자음들은 최소한의 긴/짧은 대조를 드러낸다: cade ‘he falls’ 대(vs. 對) cadde ‘he fell’, nono ‘ninth’ vs. nonno ‘grandfather’, pala ‘shovel’ vs. palla ‘ball’, fioco ‘weak’ vs. fiocco ‘flake’.

자음길이와 모음길이와 강세(stress, 強勢)사이에는 복잡한 상호 의존이 있다. 강세 음절 내의 모음은 그것이 마지막이거나 또는 자음이 잇따르지 않는 한 항상 길다: cane [kárne] ‘meat’, canne [kánne] ‘sticks’, cane[káme] dog. 강세없는 음절들에서의 모음들은 항상 짧다. 그러나 자음들은 길거나 짧을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seràta ‘eveing’ vs. serràta ‘lock-out’. 이런 원리들은 마지막으로 강세된 낱말이 잇따르는 낱말과의 밀접한 음성학적 관련 (/s/ 더하기 자음의 첫 머리 군을 지닌 하나 이상의 다른 것) 속에서 발생할 때, 첫번째 것의 모음 또는 두번째 것의 자음은 반드시 길어져야 한다는 귀결을 지닌다. raddoppiamento sintattico 또는 ‘syntactic doubling’(구문론적인 겹침)으로 알려진 현상(caffè latte [kafféllátte] ‘milk coffee’)을 생산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은 후자이다. 구문론적 겹침[병렬]을 지니지 않는 복부 화자들은 보통 그런 상황에서는 그 강세를 앞으로 끌어들인다: [káffe látte].

강세된 음절들은 마찬가지로 모음 중간에서의 높고 낮은 사이의 대립이 실현되는 유일한 위치이다: p[o]sta ‘placed(fem. sg. pcpl.)’ vs. p[ɔ]sta ‘post’, l[e]gge ‘law’ vs. l[ɛ]gge ‘he reads’. 심지어 그럴 때조차도 이런 모음들의 분포에 있어 두드러진 지역적 다양함들이 있다. 위 자음소 표에서 반모음 [j w]는 독립된 음소들의 목록에 실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각 각 /i u/의 예전 가능한 다양함들이기 때문이다: 세음절을 지닌 spi-a-nt-i [spi.án.ti] ‘spying (복수)’ vs. 두 음절을 지닌 s-piant-i-[spján.ti] ‘you(단수) uproot’.

많은 최소한의 쌍들에 의해 보여지는 것처럼 강세는 음성학적으로 예측 될수 없다: càpito ‘I turn up’ vs. capìto ‘understood’ vs. capitò ‘he turned up’; 또는 montàno ‘pertaining to mountains’ vs. mòntano ‘they mount’.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론적인 단서는 풍부하다: 예를들어 규칙과거분사들은 항상 페널티에 강세가 오며, 그리고 3인칭 복수 동사 접미어들은 항상 강세에-중성적(stress-neuter)이다. 강세에-중성적인 접어(clitic, 接語)또는 접사(affix, 接辭)가 더해질 때만 단지 그 끝으로부터 삼 음절어 이상의 음절에 강세가 온다: càpitano ‘they turn up’, fàbbriamelò ‘make it for me’. 두 번째 강세는 리듬적인 근거에서 배정된다.

이탈리아어 낱말들은 하나 또는 여러 음절들로 구성되며 그리고 보통 마지막

모음을 지닌다. 예외들은 차용어들(camion ‘truck’, sport, bar), 머리문자어(acronyms)(Fiat), 또는 결코 마지막이-발설되지 않는 문법적인 낱말들(non ‘not’, per ‘for’)이다. 비록 /p ʎ /에서는 드물기는 하지만, 낱말들은 어느 자음과 더불어 시작하거나 또는 모음과 더불어 시작한다. 음절 군들은 /s/ + /ʃ ʎ ts dz /를 제외한 어느자음, 폐쇄음 또는 마찰음 + 유음, 그리고 /spr sgl/과 같은 그런 이 두 유형의 연결을 포함한다. 음절-마지막에서, 사람들은 잇따르는 자음과 같은 기관의 비음(nasal homorganic with), /s l r/ 또는 이어지는 자음 쌍의 첫 구성원을 발견한다.

2-5)정서법(Orthography).

c f sc는 a o u 앞에서는 [k g sk]로 그리고 i e 앞에서는 [tʃ dʒ ʃ]로 발음된다. 정서법 h의 삽입은 전설 모음들 앞에서의 연구개 음가를 특수화 한다. 그리고 i의 삽입은 후설 모음들 앞에서 경구개-치경음을 가리킨다. 모음 문자 e와 o는 닫힌 쌍 vs. 열린 쌍 /e ~ ε, o ~ ɔ/ --이것은 아마 드넓은 지역이 다양함에 의해서 잘 그러할 것이다--를 구분하지 않는다. 정서법의 엑센트는 마지막 강세(perché ‘why’, caffè ‘coffee’, virtù ‘virtue’)를 가리키는 데에 그리고 e ‘and’ vs. è ‘is’와 같은 단음절어를 구분하는 데에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낱말 강세의 위치는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엑센트들은 종종 논의를 선명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입된다.//

현대 이탈리아어의 철자(spelling, 綴字)는 규칙적인 라틴어 알파벳을 사용한다. 그러나 영어와는 아주 달리 이탈리아어 정서법은 거의 음성학적이다. 한번 소리와 철자의 규칙적인 등가를 익히면 이탈리아어는 올바르게 읽혀질 수 있으므로 글로 쓰여질 수 있다. 어떠한 예외들도 있지 않다. 영어의 rough, though, through, bough, cough, ought에서와 같은 다른 소리에 동일한 철자들은 이탈리아어에서는 발생하지 않으며, 영어 through, zoo, shoe, flew, flue와 같은 동일한 소리들에 다른 철자들도 이탈리아 어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강세의 위치는 어떤 어려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강세받은 마지막 모음에 주어지는 그라브 엑센트가 있는 곳을 제외하면 강세의 위치는 항상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예외를 지니지만 그것은 마지막 음절 다음에 온다 라는 규칙이 있기는 하다. **ph, th, y**와 같은 어떤 어원론적인 철자들이 **f, t, t(fotografia, teologia, sistema)**에 관한 우호 속에서 포기됐다. 이탈리아인 문법가들은 철자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열린 e와 o 대(vs. 對) 닫힌 e와 o의 음색의 차이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구분은 의의 없으며 그리고 지역 마다 다양하다. 그러나 긴 자음 대 짧은 자

음 사이의 의의있는 반립(opposition, 反立)은, 그러한 길어짐이 acacsa로 발음되는 a casa “at home”에서처럼 한 낱말에서 다른 낱말로의 전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곳을 제외하면, 규칙적으로 가리켜진다(sera “evening”: serra “he tightens”; fato “fate”: fatto “done”; casa “house”: cassa “box”; capello “hair”: cappello “hat”). 어떤 복합어에서는 겹치는 철자가 표준화됐다. 그래서 della는 de la “of the”를 나타내며 dammi는 da mi “give me”를 나타낸다. 이탈리아어 철자는 프랑스어의 세디유[‘, ’ 처럼 c 아래에 붙어 ‘s’음을 나타내는 부호]나 스페인어의 틸다 ‘ ~ ’같은 장치가 없다. 소리에 있어 그런 다양함들은 문자 철자들에 의해 가리켜진다.

그라브(grave 엑센트)는 규칙적으로 강세받은 마지막 음절에 사용되며 그리고 비슷한 철자를 지닌 그리고 비슷하게 발음되는 두 낱말들을 구분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예를들어 dà “he gives”와 da “from”에서처럼. 서킴플렉스(circumflex)는 단지 fogli와 같은 더 오랜 글쓰기에서 나타나는데, 지금은 foglio “sheet.”의 복수, foglii 또는 fogli로 쓰인다.

2-6)형태론과 구문론.

로만스언어들의 목록에 실리는 공통 로만스어의 발전을 넘어서는 그러한 급격한 변화를 이탈리아어는 거의 하지 않는다. 명사와 형용사의 복수는, 루마니아어에서는 그렇지만 다른 로만스어들에서는 그렇지 않은, 라틴어 주격으로부터 파생된다. 라틴어 ille “this (one)”과 그것의 범형은 이탈리아어 정관사가 된다. 주어 대명사의 사용은 선택적이며, 그것은 강조의 의미를 가져 올 수 있다.

//2-6-1)명사 형태론

이탈리아어는 (형용사와 대명사를 포함한) 명사 변화와 동사들의 변화와의 선명한 분리들 느러낸다. 전자는 주요한 두 가지 하위-부류들을 포함한다(우측 도표 참조).

	(a)남성	여성	(b)남성/여성
단수	-o	-a	-e
복수	-i	-e	-i

그래서 (a) 부류의 형용사들은 대명사 목적어(l-o/-i/-a/-e, ‘him/her/it/them’)와 한정사(quest-o/-i/-a/-e ‘this/these’)들이 그러한 것처럼 네 가지 구분된 형식(alt-o/-i/-a/-e, ‘tall’)들을 지닌다. 관사들은 일련의 통시적으로 예측될 수없는 변경들을보여준다: 남성 단수 il, lo, l’; 남성복수 i, gli; 여성단수 la, l’; 여성복수 le). facil-e/-i ‘easy’와 같은 그런 다른 형용사들은 두 가지 형용사들을 지니는 반면 몇몇 차용어들은 또

는 전이(converted, 轉移)명사들은 변하지 않는다: blu ‘blue’, viola ‘voilet’.

명사들은 내재적인 성을 지닌다. 그리고 보통 단지 각 각 두개의 형식만을 드러낸다—guant-o/-i ‘glove(s), scarp-a/-e ‘shoe(s), luc-e/-i ‘light(s)—비록 ragazz-o/-i/-a/-e ‘boy(s)/girl(s)’와 같은 세트들이 있기는 해도 말이다. 남성명사의 작은 그룹들이 단수 -a, 복수 -i 패턴을 따른다: teorem-a/-i ‘theroem’. 단수에서 강세 없는 o a e이외의 다른 소리들로 끝나는 명사들은 그 복수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는다. 예를들어 città ‘city, citys’. 마찬가지로 산발적인 집단적인 복수 대(vs. 對) 집단적이지-않은 복수들이 있다: muro ‘wall’, mura ‘city walls’, muri ‘walls’. 집단명사는 여성복수형용사를 취한다: labbra rossa ‘red lips’.

2-6-2)동사의 형태론.

이탈리아어 동사들은 (1, 2, 3)인칭과 (단수와 복수)수와 (현재, 단순과거, 미완료, 미래)시제/시상과 (직설, 접속, 조건, 명령) 범으로 활용한다. 일상적인 인용형식은 명령법이다. 동명사와 과거분사는 절대적인 쓰임새와 마찬가지로 많은 다 소간의 문법화된 완곡어법(periphrases)에서 발견된다. 현재분사는 지금 거의 소멸해있다. 다음 쪽의 표 2는 규칙동사의 범형의 예를 보여주며 다 다음 쪽의 표 3-4는 두개의 아주 흔한 비규칙 동사들을 보여준다.

전통적으로 동사들은 자신들의 부정형에 있어서의 어간(thematic, 語幹) 모습들의 토대에 근거하여 세 가지 활용변화에 배정된다: -are, -ere, -ire. 그러나 -ere 동사들의 두 유형들은 부정형에로의 강세 위치에 의해서 구분되며(crèder ‘to believe’ vs. vedère ‘to see’), -ire의 두 유형은 그것들이 현재시제어간에 접두음(augment, 接頭音) -isc-를 취하느냐에 의존한다(partisco ‘I divide’ vs. parto ‘I depart’). 많은 불규칙 동사들이 있다. 기대되는 범형들로부터의 출발은 대부분은 현재시제와 그리고 과거/과거분사 어간에 있다.

표2. 이탈리아어 동사 <i>cantare</i> 'to have'의 범형				
	현재 직설		현재 접속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cant o	cant iamo	canti	canti amo
2	cant i	cant ate		canti ate
3	cant a	cànt ano		cànti no
	미완료		과거 접속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cant av o	cant av amo	cant ass i	cant àss imo
2	cant av i	cant av ate	cant ass i	cant as ete
3	cant av a	cant àv ano	cant ass e	cant àss ero
	과거 Preterit			
	단수	복수		
1	cant ai	cant a mmo		
2	cant asti	cant a ste		
3	cant ò	cant à rono		
	미래		조건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cant er ò	cant eremo	cant ere i	cant er ermmo
2	cant er ai		cant ere sti	cant er este
3	cant er à		cant ere ebbe	cant er èbbero
과거분사: cantato			동명사: cantando	

표3. 이탈리아어 동사 avere 'to have'의 범형

표3. 이탈리아어 동사 avere 'to have'의 범형				
	현재직설		현재접속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h o	abbia mo	abbia	abbia mo
2	ha i	ave te		abbia te
3	h a	han no		àbbia no
	미완료		과거접속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avev o	ave va mo	avess i	avès si mo
2	avev i	ave va te	avess i	aves te
3	avev a	avè a no	avess e	avès sero
	과거Preterit			
	단수	복수		
1	ebbi	avemmo		
2	avesti	aveste		
3	ebbe	ebbero		
	미래		조건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avr ò	avr e mo	avr ei	avre mmo
2	avr a i	avr e te	avr esti	avre ste
3	avr à	avr an no	avr ebbe	avrè bbero
과거 분사: avuto			동명사: avendo	

표4. 이탈리아어 동사 <i>essere</i> 'to be'의 범형				
	현재직설		현재접속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son o	<i>sia mo</i>	sia	<i>sia mo</i>
2	se i	sie te		sia te
3	è	so no		sia no
	미완료		과거접속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er o	erava mo	foss i	fòssi mo
2	er i	erava te	foss i	fos te
3	er a	èra no	foss e	fòssero
	과거Preterit			
	단수	복수		
1	fui	fum mo		
2	fosti	fos te		
3	fu	fùro no		
	미래		조건	
	단수	복수	단수	복수
1	sar ò	sare mo	sare i	sarem mo
2	sara i	saer te	sarest i	sares te
3	sar à	saran no	sarebb e	sarèbbero
과거분사: stato			동명사: essendo	

2-6-3)대명사들

음조(tonic, 音調)를 지니는 주격 대명사들은 강조 또는 애매함을 벗어나기 (disambiguation) 위해 사용되며, 음조를 지니는 목적격 대명사들은 강세 하에서 전치사들을 지니고 발생한다. 접어적 주어들은 표준어에서는 발생하지 않지만 몇몇 북부 방언들에서는 공통이다. 접어적 대명사들은 자주 사용된다: 아래 표 5를 보라 그리고 접어의 형식들에 관해서는 표 5을 보라. 후자는 앞에 있는 한정동사형의 꼬리에 붙는 후접적(proclitic, 後接的)인 것이며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비 한정 동사들의 머리에 붙는 전접적(enclitic, 前接的)인 것이다:

- ㄱ) Te lo disse. ‘he said it to you.’
prima de dirtelo ‘before saying it to you’
dovendotelo dire / dovendo dirtelo ‘having to say it to you’

표5. 이탈리아 대명사들. 3인칭복수여격은 비-전접사 lolo에 의해서 표현된다. 목적격과 여격은 1인칭과 2인칭에서 동일하다.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주어	io	noi	tu	voi	lui 남성	loro	
							lei 여성
목적어	me					lui 남성	loro
						lei 여성	

표6. 이탈리아 접어적 대명사들의 범주들과 순서

1인칭 단수	3인칭 단수 여격	2인칭 복수	2인칭 단수	1인칭 복수 위치격	재귀사	3인칭 단수/복수	명령	부분속격
mi	gli (m.)	vi	ti	ci	si	lo(m.sg.)	si	ne
	le(f.)					la(f.dg.)		
						li(m.pl.)		
						le(f.pl.)		

이 마지막 예들은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대명사들이 의존적인 부정사에 보다는 지배하는 양상 또는 시상적인 부정사(infinitive, 不定詞) 도달할 선택적인 ‘접사적 오르기’(clitic climbing)를 예시한다.

겸양(address, 謙讓)의 대명사들은 힘과 일치(solidarity, 一致)에 있어서의 선명한 대조를 부호화한다(encode): 2인칭 단수 **tu**는 친밀함과 가까움(closeness)을 표시하는 반면 3인칭 단수 **Lei**는 정중함 또는 사회적인 차이(distance, 差異)를 가리킨다. 복수에서는 2인칭 복수 **voi**의 사용에 있어 점차적으로 중성화되는 그 반대 경향이 있다. 비록 3인칭 복수 **Loro**는 극단적인 형식적인 상황에서의 사용을 위해 존재하지만 말이다. 존경(respect, 尊敬)의 대명사로서의 **Voi**는 더 이른 이탈리아어에서 발견되지만, 여전히 그것은 **Lei** 대신에 또는 Lei와는 대조적으로 남부의 지역어에서 생존한다.

2-6-4)동사적 형태구문론(morphosyntax).

동사의 굴절형들에 과거분사 더하기 조동사 avere ‘have’ 또는 essere ‘be’로 구성되는 완료 우언법(periphrasis, 迂言法, 굴절형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조동사 등을 써서 표현하는 법)이 반드시 더해져야만한다:

- ㄴ)Ho bevuto. ‘I have drunk’
Siamo scesi. ‘We have(lit. are) gone down.’

이러한 형성은 라틴어 완료의 어원론적인 반영인 먼 과거(passato remoto, ‘remote past’)에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근접과거(passato prossimo, near past’로 용어화된다. 표준어에서는 현재에 계속 관련되는 것들에 대조되는 것으로서의 완성된 과거사건들 중의 하나가 구분된다.:

- ㄷ)Torani in ufficio. ‘I went back to the office.’
Ho fatto quattro guerre. ‘I have fought in four wars.’(용감함, 나이 등의 증거로서 사용되는)

지역적인 쓰임새는 다양하다: 북부 구어(sopken language, 口語)는 (말해진 불어의 역사적인 과거에서처럼) passato remoto를 거의 완전하게 포기하지만, 많은 남부 방언들에서는 단순과거가 우세해지는 경향이 있다. 보통 과거 상태들을 그리고 미완성된 또는 고나습적인 과거 행위들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는 미완료는 저널리즘과 보다 일상어적인 이탈리아어에서 단순과거의 대안적인 표현으로 점점 더 채용된다. 우언법—stare ‘to stand’ 더하기 동명사—은 만약 진행적인 시상(aspect, 時相)을 강조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느껴진다면 이용가능하다: Stano mangiando ‘They are eating’.

자주 미래 또는 조건 또는 심지어 직설법에 길을 내어주고 있는 접속법이 비록

일상어적인 목록에 덜 흔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속법**은 동사적 형태 구문론의 핵심적인 부분이며 그리고 자주 진짜 의미론적인 대조들을 일으킨다:

- ㄹ) Digli che venga. ‘Tell him/her to come.’
Digli ce viene. ‘Tell him/her that (s)he (a third party) is coming.’
- ㄻ) se mi aiutasse ‘if he were to help me’
se me aiutava ‘if he was helping me, if he had helped me’

그것은 마찬가지로 접속은 그것의 의미가 미래 또는 불확실성의 요소를 포함하는 많은 동사들과 접속사들 뒤에 의무적[으로 쓰여진]다:

- ㄴ) Voglio che se ne vada, ‘I want him to leave.’
perché capisca bene ‘so that he will understand well’
(cf. perché capisce bene ‘because he understands well’).

2-6-5) 구문론(Syntax).

근본 타동사 절에 있어서의 정상적인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이다:

- ㄸ) Enrico accese una sigaretta. ‘Henry lit a cigarette.’

자동사절들에서의 어순은 ‘나뉘는 자동성’(split intransitivity)의 패턴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론에 의존한다. 만약 동사가 움직임 또는 상태 또는 상태의 변화(소위 ‘unaccusatives, 직접목적어를 두는 대격(accusative case)이 아닌 것’ 중의 하나라면 주어는 보통 잇따른다:

- ㅇ) Entrarono degli soldati. ‘Some soldiers came in.’
Accadde un’incident. ‘An accident happened.’

능동인(agent)이거나 또는 경험자인 곳에서의 주어는 보통 선행한다:

- ㅈ) Giorgio parlava. ‘George was speaking.’
Mio fratello dormirà. ‘My brother will sleep.’

대명사들의 경우 다른 원리들이 포함된다: 강제없는 주어들은 표현되지 않는(소위 ‘PRO-drop’) 동안, 목적어들은 접사들로서 실현된다:

- ㅊ) Ti vede. ‘I see you’
Ce la presenteranno. ‘They will introduce her to us.’

강제있는 대명사들은 충분한 명사구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발생한다. 강제있는 대명사들과 충분한 명사구들 양자는, 적절한 대화 상황에서 문장의 시작 또는 끝으로 위치를 바꾼다:

ㄱ)lo Valerio lo voglio sposare. I Valerio him. I want to marry. ‘Valerio is the one I want to marry.
프)non lo vedo, paolo. I don’t see him, (i.e.) Paul.

그러한 경우에 목적어는 마찬가지로 접사적인 대명사의 현존에 의해 표시된다
는것에 주목하라.

그것의 주어가 보통 잇따르는 그러한 동사들은 마찬가지로 essere ‘to be’를 자신
들의 완료 조동사로 취함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ㄷ)Sono usciti. ‘They have gone out.’

È morta. ‘She has died.

(cf. Hai cantato ‘You have sung’, Abbiamo mangiato ‘We have eaten.’)

Essere는 모든 재귀태들과 수동태를 위한 보조사이다:

ㅎ)Mario si è criticato. ‘Mario has criticized himself.’

Mi sono pentito. ‘I have repented’

Il problema era discusso. ‘The problem was discussed.’

수동태들과 그리고 몇 몇 재귀적인 쓰임새들도 마찬가지로 보통 뒤에 놓인 주
어들과 함께 발생하면서, 동작주(agentive, 動作主)를 나타내는 구문과 동작주를 나
타내지 않는 다양한 구문들 사이의 이탈리아어 구문론 내에서의 심층적인 구분을
제시한다.

이런 맥락에서 사람들은 접사적인 대명사 **si**의 다양한 쓰임새를 지적해 낼 수
있으리라. (예를들어 Il soldato si è ucciso ‘The soldier killed himself’에서처럼) 주어와
목적어가 동일한 곳인 ‘진실한’ 재귀사에 덧붙혀, 다음의 것의 것들이 발생한다:

(a)si가 주어를 표현하며 그리고 심지어 자동사와 함께 발생하는 곳에서의 비인
칭(Impersonals, 非人稱)들:

가)Spesso si arriva in ritardo. ‘One often arrives late.’

(b)그 안에서의 si가 동작주는 표현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비인칭수동태:

가)Si è scoperto il vero colpevole. ‘The true culprit has been discovered.’

(c)속성(properties, 屬性)들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중간태(Middles):

거)Questo vestito si lava facilmente. ‘This shirt washes easily.’

(d)주어가 보류된(suspended) 내재적 재귀절들:

겨)La finestra si rompe. ‘The window broke.’

Giorgio si ammalò. ‘Geroge fell ill.’

이런 다양한 쓰임새들을 차이 지우기 위한 몇몇 구문론적인 검사수단(tests)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접사적인 대명사들은 비인칭사들 대(vs. 對)재귀사들의 측면에서 다르게 위치지워진다:

고)Lo si dice. ‘One says it.’
Se lo dice. ‘He says it to himself.’

비인칭 si는 형용사들과의 복수적 일치를 야기시키며(Si è sicuri ‘One is sure’), 그래서 다른 비인칭 구문들도 그러하다:

교)Bisogna essere sicuri. ‘It is necessary to be sure.’
per essere sicuri ‘in order to be sure’

첫 si가 ci로 실현[구현]될 경우에 비인칭들과 재귀사들은 함께-발생할 수 있으리라:

규)Ci si lava. ‘One washes oneself.’
그러나 Andrea si lava. ‘Andrea washes himself.’

그러나 si의 다양한 쓰임새의 충분한 다름과 분류는 이탈리아어 문법의 아주 복잡하고 논쟁적인 영역 중의 하나를 나타낸다.//

2-7)어휘.

언급된 것처럼, 이것은 압도적으로 라틴어이다. 중세 후기와 연이어지는 세기들에서, 이탈리아어오는 다양한 유럽어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의 정치 문화적 지배기 동안에 이들 나라의 언어들로부터 (순수주의자들에게는 슬픈 일) 차용했다. 차용어들의 숫자들은 크지 않았지만, 그것들 중에는 giardino “garden,” mangiare “to eat,” giallo “yellow,” flotta “fleet” 등 흔한 단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주 발생했다. 스페인을 통해서 자주 들어 오는 아랍낱말들은 접두사 al-에 의해서 인지되며, 게르만어 낱말들은 게르만어적인 w-로부터의 gu-에 의해서 인지된다: 이탈리아어 guerra—영어 “war”. (첫 번째 것은 로만스어로부터 빌려 온 것인 반면 두 번째 것은 게르만 자국어로부터 빌려온 것인 영어낱말 쌍 “guard”와 “ward”를 비교해 보라). 많은 교양어들은 후에 특히 르네상스 기간 동안에 라틴어로부터의 차용어들이며(다시 낱말들의 쌍으로 인도한다: circulum >cerchio, 후에 circolo로 차용된다), 그리고 현대 학문적인 용어들은 많은 라틴어 어근들을 사용한다.

//2-7-1)파생(Derivation)

이탈리아어 파생 형태론의 주목할만한 특색은 감정을 나타내는 접미사들의 드넓은 범위이다: 예를들어 축소형 -in-o/-a, -ett-o/-a, -ell-o/-a; 증가형 -on-e/-a; 또는 경멸적인 -acci-o/-a. 이것들은 비록 결코 모두 논리적으로 가능한 연결들이 포착되는 것은 아니지만 명사들에 보통 덧붙혀진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이러한 형성들도 주목해 보라:

그)ridacchiare ‘to cackle’ < rider ‘to laugh’

fredduccio ‘chilly’ < freddo ‘cold’

부사들은 domani ‘tomorrow’, 또는 davvero ‘indeed’와 같은 변하지않는 것들을 포함하며 마찬가지로 형용사로부터 -mente의 덧붙힘에 의해서 생산적으로 형성된다. 다른 전통적인 부류들 사이의 두드러진 중복이 있다: dopo ‘after’ (전치사, 부사), dopo che ‘after’ (접속사); su ‘on’ (전치사, 부사).

차례

- 1)로만스어 1
- 2)이탈리아어 3
 - 2-1)방언 6
 - 2-2)표준어 7
 - 2-3)언어학의 역사 10
 - 2-4)음성학 11
 - 2-4-1)알파벳 13
 - 2-5)정서법 16
 - 2-6)형대론과 구문론 17
 - 2-6-1)명사 형태론 17
 - 2-6-2)동사 형태론 18
 - 2-6-3)대명사들 22
 - 2-6-4)동사 형태구문론 23
 - 2-6-5)구문론 24
 - 2-7)어휘 26
 - 2-7-1) 파생 27.

지도 도표 목록

- 1)로만스어 지도 1
- 2)로만스어 계보 2
- 3)현대행정지도 3
- 4)현대이탈리아어 지도 5
- 5)이탈리아어 자음소들 13
- 6)알파벳 14
- 7)형용사 명사 변화표 17
- 8)동사 *cantare* 변화표 19
- 9)동사 *avere* 변화표 20
- 10)동사 *essere* 변화표 21
- 11)대명사들 22
- 12)접어적 대명사들 22